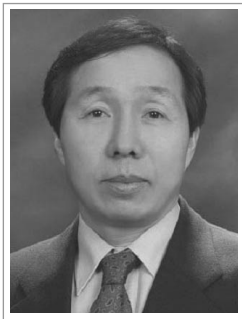


원자력안전협약회의와 6위 국가의 역할

-의장 활동과 회의 동향-

나 성 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장



참여국 동향과 협약 개요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제4차 검토회의가 4월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총 61개 체약국(60개 국가와 EURATOM) 중 55개국으로부터 각국 대표자 6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필자가 의장을 맡은 제5그룹에 대해서는 독일과 캐나다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조직회의 때부터 많은 참여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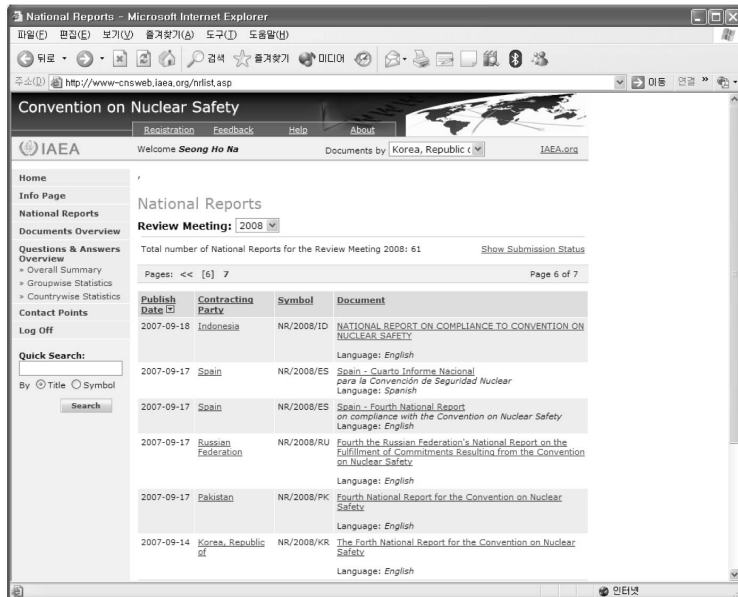
독일은 폐로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시각과 원자력발전소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대상 발전소의 안전준위를 판단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캐나다는

규제 기관이 안전 문제로 가동을 중지한 연구용 원자로를 국회가 재가동시키고 규제기관장을 경질시키자 이러한 행위가 안전협약조항을 위배하는 것인지 또는 규제 행위가 국민의 이해와 충돌되었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 현안 문제로 부상되었으며 이에 IAEA와 참여국들은 제5그룹 의장으로 선임된 필자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의 준비 과정에서 IAEA사무국은 체약국의 가동, 폐쇄 및 건설 중인 원전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담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적어도 검토회의 6.5개월(약 7개월) 이전에 수집하고 곧 조직회의를 열어 국가그룹 분류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국가그룹 분류는 Tennis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학사,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학 원자력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 부장
IAEA 안전전문관
OECD/NEA 방사선피폭국제협회 이사



CNS 공식 홈페이지 www-cnsweb.iaea.org

Seeding 방식으로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국가 순서로 1그룹부터 6그룹까지 나누고 7번째 국가부터는 역으로 6그룹부터 시작하여 분류된다. 그리고 발전소가 없는 국가는 무작위로 순서를 정해 배정한다.

조직회의에서는 지난 3차 검토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의장단을 선출하며 의장단은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과 부회장 2인 그리고 각 국가그룹회의를 주관하는 그룹의장, 부의장, 서기관, 조정관, IAEA 간사로 구성된다.

다른 IAEA의 중요한 회의의 의장과 중요 직책이 사전에 잠정적으로 선출되는 것과 같이 전체 회장은 총회(Plenary)에서 추천되는

방식을 택하나 사전에 협의되는 것이 관례이다.

각 국가그룹에서 선출되는 의장단은 전원 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선출한 의장과 서기관은 자신의 나라가 속한 그룹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그룹의장은 매일 전체 회장단 및 IAEA 사무차장과 함께 조정회의(General Committee meeting)에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특히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2007년 9월 개최된 조직회의에서 3차 검토회의 의장인 MS. Linda Keen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및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 가동중인 원

자력발전소에서 경년 열화(Ageing)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Peer Review) 등을 통한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성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3차 검토회의 이후 원자력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증진되고 있으며 아시아안전 네트워크(ANSN), 국제고위규제자협의(INRA), WENRA 등을 통하여 우수 사례(good practice)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다 더 개선해야 하는 등의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협약과 관련하여 비발전국(Non-NPP countries)들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점언하였다.

조직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 중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공통 사안으로 도출되었으며 독일과 캐나다의 사안이 이와 관련이 있어 4차 검토회의에 관한 계획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그룹을 진행하는 과정에 타그룹에 소속된 계약국이 참여할 수는 있으나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옵저버(observer)로서만 참여할 수는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타그룹에 소속된 계약국일지라도 특정 국가그룹에 소속된 다른 국가에 대해 검토회의

전까지 질문을 전달하였다면 그 국가그룹의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발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몇몇 국가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이상한 질문을 전달하고 타국가그룹의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함을 파악하였다.

협약체약국은 6개월 전까지 IAEA에 웹사이트(www-cnsweb.iaea.org)에 국가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질의내용을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답변 내용 공란을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예비 절차에서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검토회의에서는 국가의 주요 사안과 계획,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의 변경 사항과 질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39차 IAEA 총회에서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9년 개최된 제1차 검토회의부터 계속 참석하여 왔으며 금번 검토회의에서는 영국, 핀란드와 함께 6그룹에 속했고 4월 17일 참여국들과의 검토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자료와 발표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았다는 칭찬들이 필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의 규모가 세계 6위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CNS 제4차 검토회의의 개막 총회

4차 협약회의에서의 의장 활동

이번 우리나라가 국가그룹의장 추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핀란드도 의장단에 선출되기를 원했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헝가리가 한국의 의장직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에 영국과 슬로베니아, 핀란드에 협조를 구했던 점이 도움이 되어 이미 서기관으로 호선된 영국이 한국의 의장직을 찬성하였고 서기관직을 핀란드에 양보하면서 헝가리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가 1차부터 4차까지 계속하여 의장단에 선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협약 체약 국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1999년 1차 원자력 안전협약검토회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이후 3년 주기 회의마다 체약국이 변경한 사안과 협약

규정의 이행보고서를 검토회의 이전에 제출하고 검토회의에서 이를 답변하였다.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1시간 정도 발표 시간 안에 다른 국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요약 발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는 의장이 협약 규정 항목별로 참여국들의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발표 국가의 우수 사례, 도전 과제, 그리고 우려 사항(권고 사항) 등을 도출하고 참여국들이 이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절차를 밟은 후 기록으로 보존된다.

이번에 국가별 검토회의에 할당된 시간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약 10기 이상)하는 국가에게는 1일, 중간 규모의 국가에게는 4시간(벨기에와 스위스 경우),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국가에게는 1.5시간을 할당

<표> 국가그룹회의 구분과 일정

	Group 1 C07V	Group 2 Board	Group 3 C07VI	Group 4 C07IV	Group 5 NH 호텔	Group 6 NH 호텔
4/14(월) 오후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칠레	터키
4/15(화)	미국	덴마크 남아공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호주 체코	독일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4/16(수)	에스토니아 스웨덴	그리스 중국	일본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쿠웨이트 불가리아	영국
4/17(목)	벨로루시 루마니아	포르투갈 벨기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룩셈부르크 스위스	대한민국
4/18(금)	유라툼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러시아	우루과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4/19(토)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말리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캐나다	레바논 라트비아 헝가리

하였다.

그러나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권한으로 약간의 시간을 가감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해야 한다.

제5그룹이 유일하게 국가별 계획과 시간표를 해당국 대표와 합의하여 이를 반영한 Agenda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 Agenda의 사안별 검토 시간에 따라 참여국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좋은 평가가 필자에게 전해졌다.

1. 개막 총회 개요

체약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개막된 총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구구멜라 의장은

제3차 검토회의 제기된 안전문화, 노후 원전의 안전 관리, 규제역량의 유지 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규제 활동의 투명성과 대중신뢰, 안전 성능 지표(SPI),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RIR), 규제 관행 및 안전 기준의 조화 등이 새로운 도전 과제로 등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니구찌(IAEA 원자력안전 및 보안 사무차장)는 환영사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원자력산업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금번 검토회의가 범세계적인 원자력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락소넨 INSAG 부의장은, 국제원자력 공동체가 원전을 새로 도입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원자력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을 시작하여 법체계와 기술적 역량을 확보한 규제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비엔나 주재 캐나다 대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원자로 NRU의 재가동 과정에서 규제기관장이 경질된 사안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원자력 의사 결정에 있어서 자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논란이 되었던 NRU의 안전 조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였으며 이를

재가동하더라도 안전이 위협받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CNSC가 독립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캐나다 대사가 직접 나서서 제5그룹 토의에서 자세한 질의에 답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 제5그룹 개요

제5그룹 소속 10개 체약국에서 스리랑카와 쿠웨이트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우루과이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검토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독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칠레, 불가리아 등 7개 국가가 검토회의에 참석하였다.

제5그룹 의장단은 의장인 필자(한국), Mr. Albert Frischknecht 부의장(스위스), Mr. Sergii Klevtsov 서기관(우크라이나), Mr. Hartmut Klonk 조정관(독일), Mr. G. Caruso 간사(IAEA)로 구성되었으며 <표>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3. 독일의 주요 쟁점과 의장 활동

필자가 의장을 맡은 제5그룹에 독일과 캐나다가 속해 있어 개막 총회부터 많은 참여국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4월 15일 진행된 독일에 대한



제5그룹 캐나다에 대한 검토회의(4.19.)

검토회의에서는 원전 폐쇄 정책(Phase out)을 추진하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전 간 수명 이전(Life time transfer) 방법이 이례적이며 대상 원전의 안전 준위를 평가하는 방법의 부적절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의 제안에 체약국 모두 동의하였다.

즉, 안전에 대한 평가는 대상의 설정된 준위의 만족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상대적인 방법으로 대상 원전의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고 전력 생산권의 이전을 결정하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의장의 권한으로 원전 간 수명 이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독일이 향후 안전성 비교 기준과 평가 방법,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정하였다.

4. 캐나다의 주요 쟁점과 의장 활동

많은 체약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4월 19일 캐나다에 대한 검토회의는, 그룹의장의 권한으로 연구용 원자로 관련 규제기관장 경질 사안을 첫 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해서는 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참여국이 질의하도록 자유 토론 형식을 채택하였다.

캐나다는 비엔나 주재 캐나다 대사가 대표로 발표와 답변을 주관하였으며 첫 의제에 120여명이 1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례가 되었다.

비엔나 주재 캐나다 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 NRU의 안전성을 규제 기관이 지적하였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회

가 비상 입법을 통해 NRU를 재가동시키면서 규제기관장을 경질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체약국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질의 내용은 규제 독립성이 이해 상충에 직면할 경우의 판단과 규범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열띤 토론과 몇 번의 긴급 정회 후에 필자는, 참석한 체약국과 의장단의 의견을 모아 서기(Rapporteur) 보고서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안은, 규제의 독립성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원자력 이용으로 얻어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재화의 확보와 원자력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요약·정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잠재적인 독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가 당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IAEA가 이를 보다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5. 제5그룹의 기타 쟁점과 의장 활동

제5그룹에서 토의한 주요 의제로 불가리아가 Belene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고 캐나다와 스위스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결정했으며 칠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했음이 보고되었



제5그룹 소속 체약국 대표와 의장단

다. 그리고 검토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촉진 활동 (promotional activities) 으로부터 사실상 (de-facto) 과 법적인 (de-jure) 규제 기관의 독립성
 - 안전성 평가에 국제 지침과 행위 (예: PSRs, 신규 원전 등) 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와 국가 규정의 조화
 - 규제 기관과 원전 운영자가 조화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 문화 증진
 - 원자로의 노화, 지식 관리, 신규 원전 등에 의한 인력 확보
 - 국가 간 경험과 연구 결과 교환 및 공유
 - 비상 대응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증대
 - 규제 기관과 원전 운영자의 PSA 사용 증가
 -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 및 관

계 개선(투명성)

- 작업자와 부서 기구의 평가에 정신학 전문가 참여 증가
 -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과 활용
 - 원전 upgrade와 안전성 향상 환경 그리고 30년 이상의 성공적인 원자력 발전
- IAEA와 체약국들은 독일과 캐나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회원국의 합의를 원만히 도출하고, 현안을 명확히 정리한 제5그룹 의장인 필자의 활약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하였다.

회의 동향 및 관찰

이번 검토회의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 국가가 논란 의제를 제기하면서 조직회의에서 공개 실무 그룹 회의 (Open-Ended Working Group; OEWG) 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를 검토회의 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제기된 주요 의제는 검토 과정의 효율성, 2주일 검토회의 기간의 단축 방안, 3년 개최 주기를 4년으로 연장, 규제 기관의 효과적 독립성, 대중과의 정보 교류 등이 있었다.

첫째 주는 검토회의가 토요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OEWG는 공개적인 토론 방식으로 매일 1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검토 주기를 4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차기(5차) 회의의 일정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검토회의의 연속성을 위한 세부 방안과 기자회견 개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국가보고서의 형식과 구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프로젝트 추진 안 등이 최종 결정되었다.

제5그룹에서는 독일, 캐나다, 스위스가 검토회의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방법과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다. 13명 정도의 구성원들(스위스는 8명)을 전문분야별 기관별로 고위급으로 구성했으며 질의 사안에 따라 친절하고 끈기 있게 답변하였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과 친절한 답변에 모든 참여국들이 찬사를 보냈다.

참여국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제국가도 규제기관장이 발표와 답변을 주관했으며 캐나다는 비엔나 주재 대사가 직접 총괄한 것은 그들의 적극적 외교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번 검토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관찰한 사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모든 그룹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조정회의에 보고되었고 제5그룹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IAEA의 IRRS를 받아들인 국가들로 자국의 안전 조직과 활동의 우월함을 나타내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대열에 캐나다가 빠진 것은 NRU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의 국가보고서 검토회의에서 필자가 주도한 회의 진행 방법과 참여국들의 합의 도출, 그리고 마지막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재논의하려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제안에 대해 필자가 의장 자격으로 120명이 1시간 공개 토론한 결과를 재논의함은 부적절함을 주장하여 제5그룹의 제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받을 감사의 몫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회의 후 캐나다 대사와 대표단 및 IAEA 사무차장이 필자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최종 요약보고서와 의장보고서를 확정하는 최종 본회의에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브라질의 의견 개진과 적극적으로 토론 참여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제안 내용들이 문항에 따라 너무 세부적이고 설득과 난상 토론이 많아 오전 계획에 차질을 야기했다.

오후에는 필자가 회의 진행 발

언을 통해 회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개요(concept) 위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캐나다가 지지했으나, 프랑스와 스웨덴이 주장하여 현재 방식으로 회의를 재개하였으나 필요 이상의 설득과 토론이 줄어들어 회의가 효율화됨에 따라 주변 참여국들이 필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해주었다.

필자는 조정회의의 의견 조정과 최종 본회의에서의 요약보고서 문항 개요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안전학교와 관련된 인력 양성 현안과 우리나라가 참여국의 합의를 이끌었던 재해의 확보와 원자력 안전 충돌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켰다.

또한, 전 세계 원자력산업이 안전에 대한 자만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고 규제 체계 및 활동을 평가하는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및 운전안전성검토팀(OSART) 방법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참여국들이 동의하였으며 이를 요청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많은 체약국들이 규제 경험 및 전문 지식의 전수와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할 주요 분야로는 원전의 노후화 대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활용의 확대, 안전문화 증진, 운전 경험 반

영, 중대 사고 대응 등으로 도출하였으며, 첫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약국들에게는 건설 이전에 기술적 전문성, 법률 및 규제 체제 등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신기술 원전의 인허가가 도전 과제이며 이 점이 새로운 전문성과 국제 협력 증대를 요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수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포괄적이며 일체화된 규제 인프라 Package를 원전 신규 도입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 체계 및 기술 지침 등을 포함하여 기술 지원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출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유 및 운영 권한의 개념도 꼭 소속 국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원전 수출국이 신규 도입국에 원전의 건설·운영·허가를 책임지고 생산된 전기를 신규 도입국에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이 기고를 마무리하며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위상은 우리의 바램이 어떠하였던 명실상부한 원자력 5위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 5위 국가라는 사실과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실제적인 위상을 고려해보면 앞



반기문 UN 사무총장. 본회의를 마친 4월 25일 오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은 부인)이 IAEA Conference Building의 개관식에 참석차 방문하여 UN의 운영 방침으로 Result Based Product와 Transparency에 기반을 둘 것임을 연설하였고 필자와 우리 대표단을 보고 반갑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으로 우리의 도전 과제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5위 국가의 위상 유지 의지와 노력(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의 능력(원자력 수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 체약국에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접근 방법 모색(유럽은 상호 전문가 교환이 활성화 되어 있어 주요 국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대 국가의 규정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함)
- 국제 회의 전문가 육성(캐나다와 일본 외에 여러 국가가 이미 운영)
- 우리나라 안전 및 운영 지표와 정보를 국제화(국제 출판물에 우리나라 자료 입력 확대 : 국제 사

회에서 국가 간 지표를 비교 분석할 때 우리나라 자료 누락 빈번)

끝으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고서와 발표 자료가 투명하고 체계적이었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고 의장 조정회의에 보고가 있었고, 다른 체약국들이 이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대표단 구성원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본회의를 마친 4월 25일 오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은 부인)이 IAEA Conference Building의 개관식에 참석차 방문하여 UN의 운영 방침으로 Result Based Product와 Transparency에 기반을 둘 것임을 연설하였고 필자와 우리 대표단을 보고 반갑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다. ☺